

몽골어 어두 *t-의 구개음화에 관하여

김 방 한

한국어와 알타이 제어와의 어휘 비교에서 MK. *tōl-h* : Mo. *čilayun* : OT. *taš* 는 가장 확실한 것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는데, 실은 다분히 직관에 의한 것이지 그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없었다. 필자가 알고 있는 한, 이러한 비교를 최초로 제시한 것은 Polivanov 이다. 그 뒤 이와는 별도로 Ramstedt 와 Poppe 도 동일한 비교를 여러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것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되어 여러 학자에 의해서 인용되고도 있다. 그러나 여기에는 해명을 기다리는 몇가지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. 먼저 Poppe 가 그의 <알타이 제어 비교 문법> (pp. 15, 77, 98, 120) 에서 제시한 것을 종합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:

Ko. *tōl* '돌'
 = Mo. *čilayun* < **čila-yün* < **čila-wün* < **t'āla-bün*
 = Chuv. *čul* < **t'āl* (혹은 **tial*) < **tal*² < **tāl*², OT
taš < **tāš* < **tāl*² < **tāl*²*a*, Yak. *tās*.
 Cf. pA. **tāl*²*a* '돌'

이 비교에서 첫째로 문제되는 것은 몽골어와 추바시어의 구개음화이다. 추바시어를 제외한 튀르크어 제방언에서 첫음절의 모음이 모두 -a- 이고 따라서 pA. -*a-로 재구되기 때문에 t-가 구개

음화하는 요인이 t-에 후속하는 모음의 영향이 아님을 알 수 있다. 여기 관해서 Ramstedt 에 의하면 알타이 제어에는 다음과 같은 한 특징이 있다고 했다. 첫 음절의 자음이 어떤 분명한 이유없이 습음화 혹은 구개음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현상은 불규칙적인 것이지만 아주 옛 시기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았다. Ramstedt는 이러한 현상의 예로서 바로 Mo. *čilayun* < *t'al'ayun 을 들었다. 이러한 구개화의 요인이 Poppe의 위 비교에서 슈바시어 *t²- 혹은 *ti-로 표기되고 있다. 이 점에 있어서 Poppe도 Ramstedt와 같은 견해인 것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몽골어의 경우에도 Mo. *čila-* < *tila- < *tiāl-로 생각되는 것은 당연하다. 그리고 여기서 -*a-를 재구한 것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. 그러므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고대 튀르크어 및 여러 방언의 -a- (< pA.-*a-)와 한국어 -ō-의 대응이다. 다시 말하면 Ramstedt나 Poppe가 재구한 pA.-*a-와 MK. -ō- (< -*u-)의 대응 관계가 설명되어야 한다. 그러나 필자가 알고 있는 한, 이 관계를 설명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없었다.

Poppe는 위에서 제시된 비교 이후 어두 자음 뒤에 있는 모음에 관해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.

$$\begin{aligned} & Mo. \check{c}ila-yun < *tila- < *ti\bar{a}la- \\ & = Chuv. \check{c}ul < *t'al' < *ti\bar{a}l^2 > T\ddot{u}r. t\bar{a}\check{s} \end{aligned}$$

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슈바시어의 경우 *čul*이 *t'al' < *tiāl²과 *t²al < *tal²에서 변화했다고 보는 견해의 차이이다. 여기서 -i-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t²-로 표기될 때와 같이 구개화 요인을 표시하는 것임에 다시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다. 다시 말하면

*tʃāl은 *tʃāl²로 표시되어도 좋다. 그런데 그는 튀르크어의 장모음이 음성결합(Combination of sounds)에 소급하는 예로서 pA. *tʃāl²을 든바 있는데, 그는 다시 pT. *tʃāl²은 *tila-에 소급하며 여기서 "i의 깨임(Breaking of i)"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.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원시알타이어형 *til²a-가 재구된다. pA. *tila-를 재구하고 "i의 깨임"을 도입하는 것이 튀르크어의 여타어형이나 혹은 튀르크어와 몽골어의 어형을 관련지어 설명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편리하다. 그러나 재구형 pA. *til²a-와 "i의 깨임"이 Mk.tōl-h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유효한가? 백제의 옛 지명이 보여주는 tol-ak(珍惡)이 말씀절에 분명히 모음 -a-가 있다. 그렇다면 첫음절 -o-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? 즉 *til²a-에서 tōl-(ak)으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. 그러므로 원시알타이어형 *tāl²a-를 재구하든지 혹은 *tīl²a-를 재구하든지 Mk.tōl-h의 -ō-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같다. "i의 깨임"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위험이 있다. Mk.-ō-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절에 첫음절의 -ō-와 같은 모음을 임의로 가정하게 되는데, 그렇다면 말씀절의 -o-가 또한 설명되어야 한다. tol-ak에서 -ak의 -a-는 분명히 -o-가 아니다.

위에서 본 대응에서 몽골어의 t-가 구개음화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, 위의 대응은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.

(주)MK.=중기 한국어, Mo.=몽골어(문어), pA.=원시알타이어, Chuv.=츄바시어, OT.=고대 튀르크어

<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 교수>